

“해남형 ESG 실현...살맛나는 으뜸해남 만들겠다”

명현관

해남군수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경선, 무투표로 당선됨으로써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해남호를 이끌게 됐다. 민선 7기 해남군은 역대 최대의 군정성과를 거두며, 장기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했다. 민선8기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군정목표로, 그동안의 군정성과들을 확실한 안정과 번영으로 활짝 꽃피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협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의 5대 군정방침을 정하고, 분야별 100개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와 존중, 바르고 유능한 윤리경영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 ‘공정, 공평, 공개’의 군정운영방침을 확장해 군정의 전 분야에서 ‘해남형 ESG윤리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형 ESG윤리경영은 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소통과 참여(Governance)로 만들어 가는 ‘바르고 유능한 군정’을 의미하며 민선 8기의 군정운영 철학을 관통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과 함께 해남형 ESG비전 선포식을 갖고 군정에 반영할 5대 정책과제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5대 정책과제는 ‘기후변화대응 선도, 녹색환경 조성, 생활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상생협력, 공정과 투명’으로,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ESG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군민들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등 생활 속 실천과제를 통해 확산에 동참해 나간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

명현관 군수는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통해 확인한 농어업 선도지자체의 위상을 이어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1번지로 도약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4,079억원 규모의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2025년까지 해남 삼산면 일원에 들어선다.

해남군은 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까지 전남도 통합 과수연구소가 이전하며, 해남군 고구마연구센터도 연구단지 내에 입지한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메카로 조성된다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시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로 변신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지난 2020년 국내 최대 98MW 규모의 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전략에 따른 산이정원 조성고 240억원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역점 추진되고 있다. 2025년 운영을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 1번지 도약

지역경제 활성화·SOC 기반 확충

소통공감 윤리경영 등 ‘5대 군정’

권역별 사업 관광 르네상스 목표

교육재단 설립 장학사업 기금 마련



목표로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대국민 교육, 홍보를 담당할 240억원 규모 탄소중립 에듀센터도 들어선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로 채택되면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에 국비 5,500억원,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전용 산업단지 및 발전단지 조성에 1조 7,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소중립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SOC 확충

해남군은 민선 7기 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던 2018년에 비해 국도비는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49건, 498억원에 불과하던 공모사업도 지난해에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포함해 127건, 5,369억원이 선정돼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발맞춰 군의 예산은 2019년부터 전국 군단위 유일하게 지방재정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해남이 선도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된 사례도 많았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농민수당은 다음해 전남도 공익수당으로 확대됐고, 지금은 전국 대부분 광역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다.

2019년 170억원 규모로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난해에는 1,750억원까지 늘어나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 판매액을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해남소통넷, SNS를 통한 활발한 군정 소통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한 축제로 운영된 해남미남축제, 2018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 22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 운영 등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줄이 올 정도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민선 8기에는 이러한 상생의 협력으로 성과를 보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농촌협약 사업을 통한 면단위 생활 SOC 확충과 회원산업단지 풍력발전 배후단지 조성,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등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읍면 균형발전으로 격차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교통과 물류, 관광에 큰 변화를 몰고 올 대 규모 SOC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청신호가 되고 있다.

보성-임성간 남해안 철도가 내년 개통예정으로 해남에 처음으로 계곡면에 철도역이 생기고, 철도가 개통된다.

또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서 해남 땅끝까지 고속도로가 이어진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해남-광주간 소요시간이 40분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남 매력 더한 체류형 관광

해남마실 생활관광 프로그램과 맞춤형 관광상품 발굴에 주력했고, 지난해에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관광재단도 출범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해남미남축제를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개최했고,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우수영 권역이 눈에 띄게 관광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 군수는 “민선 8기에는 역점 추진해온 권역별 관광 개발 사업의 완료와 함께 회원관광단지

활성화,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해 해남관광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땅끝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의 땅끝공원을 곧 준공하고,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을 통해 황토나라테마촌과 오토캠핑장, 땅끝전망대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 땅끝만의 특성을 가진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한다.

두륜산 권역에는 생태힐링파크와 복합레저 테마파크를 조성해 가족단위 관광객 대상의 자연치유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공동화석지는 어린이 공동과학체험관을 조성,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박물관이자 물놀이 체험장 확충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

민선 7기 동안 청소년 누림문화센터와 청년두드림센터, 군 노인회관과 보훈회관, 해남시네마 건립에 완료되면서 세대별, 연령별 문화복지거점 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해남군 2030푸드플랜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과 해남군 신청사가 건립이 완료돼 군민들의 오랜 염원의 결실을 이루게 됐다.

하반기에는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와 땅끝가족여울집센터가 개관할 예정으로 대부분 주민편의 시설 조성이 마무리된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사업은 올해말 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장학사업 관리를 실시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 해남군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결과 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고, 공약이행률 99%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군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왔다”며 “민선 8기에도 군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육성해 그야말로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주요 공약

▲해남형 ESG 윤리경영행정 확대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및 해남군 장학재단 설립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 ▲김치산업 융복합화 및 해남고구마 연구센터 설립 ▲농어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농촌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주민주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권역별 관광콘텐츠 확충 ▲회원 목표구 등대 개발 활성화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디지털 역사문화콘텐츠 관광 조성 ▲지역특화 인구 활력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공감도시 조성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명현관이 걸어온 길

▲호남대 대학원 체육학 석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해남군체육회 상임부회장 ▲국제레타리 해남공물클럽 회장 ▲동백장학회 이사 ▲민선 7기 해남군수

(왼쪽부터)
▶지난 2021년 해남미남축제 프로그램 진행 모습.
▶명현관 해남군수가 화원산단을 방문해 둘러봤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버는 물 관리 기술 보급공모사업에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